

강원도 칸타타

나가자 나가자
백두대간에 피어나리

환상의 바다 어둠을 헤치며

불타는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불타는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민족의 서기가 꿈틀거린다
민족의 서기가 꿈틀거린다
꿈틀거린다

명산은 정기를 모아 한강수를 뿜어 올리고
반만년 찬란한 역사 굽이굽이 휘감아 돌아
슬기로운 거래의 심성 비단처럼 깔렸네

솟아오른 진토백이는
기러기 세 마리를 북쪽으로 앉혔는데
바람이여 문제를 데려가라
파도여 수재를 걷어가라
불길이여 불길이여 화재를 잠재우라

에헤 풍년을 발원하는 우리들 단오터에
장단도 좋을시구 춤사위도 넘쳐난다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유점사 법당뒤에
칠성단 도두 모고 팔자에 없는 아들딸 나달라고
석달열흘 노구뒀에 정성을말고
타관객리 외로이 난사람 괄세를마라.

세파에시달린몸 만사에 뜻이없어 홀연히 다떨치고
청녀를 의지하여 지향없이 가노라니 풍광은 예와 달라
만물이 소연한데 해저무는 저녁노을 무심히 바라보며

옛일을 추억하고 시름없이 있노라니
눈앞에 온갖것이 모두 시름뿐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산이로다 안개로다 바다로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사는 고장으로 구나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신단에서 웅태기단 주문한다

신비하도다 영원한 땅이로세
그리운 사람들 모두 모여 민족의 통일이여
남북이 하나 되어 웅터에 통일 이뤄

약속의 땅이로세 파도의 시선이로세
장구하다 한국의 산하여 찬미로다 영광의 땅이여

빛나라라(빛나라라) 영원하리라(영원하리라)
아아 아름다운 강원을 아아 아름다운 강원을
거대하게 힘차게 다함께 하자